

## 방역지침 지키는 시민들 개신교발 코로나 확산에 '분노'

광주 TCS 국제학교 이어 대형교회·고교까지 ... 하루 새 36명 확진  
안디옥교회 39명, 검사 거부도 ... 광주시 "강제 명단확보" 최후통첩

### 전남 곳곳까지 감염 확산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 또 다시 광주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화순은 확진자가 잇따라 군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섰다.

〈관련기사 2·6면〉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36명(광주 1680~1715번)이 추가됐다.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3명(누적 117명),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 1명(누적 39명), 안디옥 교회 관련 15명(누적 39명)이다.

나머지 15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2명은 3일마다 실시하는 검사에서 나온 효정요양병원 관련이다. 특히 감염경로가 나오지 않는 광주 1645번이 이용한 광주 북구 한 게임센터를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또 광주 서구 광덕고 재학생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A군은 영어학원 관계자인 광주 1646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1646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광주 1645번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다. A군은 지난 18일부터 방학 중 보충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IM 선교회 관련 시설 4곳의 교사, 학생 등 286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이중 양성인 117명이었고, 음성은 172명이다. 확진자들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생활지원센터로 이송됐다.

안디옥 교회는 전남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현재 15명 등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

관련 확진자들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개신교발(發) 코로나 19 불뚱은 전남으로도 튀기 시작했다.

순천에 살며 방학기간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닌 학생 가족 4명(전남 741-743, 745번)이 27-28일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남 방역 당국은 광주시로부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전남 학생이 순천 7명·장성 2명·완도 1명 등 모두 10명이라는 통보에 따라 가족 검사에 나섰다. 광주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학생 10명 중 7명에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순천에서 2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고흥에서는 광주 빛내리교회 관련 확진자(광주 1500·1531번)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739번)가 발생했다. 광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화순 동면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지난 22일 사명면 사무소 직원인 전남 73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전수 조사에 나선 화순군은 동면사무소를 일시 폐쇄했다. 이들을 포함해 27-28일 전남에서 나온 확진자는 오후 6시 기준 10명으로, 전남 누적 확진자는 745명이다.

/최규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자들은 모두 지난 24일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로,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부목사(광주 1652번)와 그의 자녀(광주 1639)도 포함됐다. 부목사의 자녀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합숙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은 선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24일 진행된 주일 예배에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최초 지표 환자를 통한 예배당 확산 여부도 정밀 역학조사 중이다.

당국은 교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인들(55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24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회 측에 검체 받은 신도 명단을 의무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날까지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 유치원생·초등 1~2학년, 새학기 매일 등교

####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때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때까지 새학기에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수능시험도 예정대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 치른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1·2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까지 학교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때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는 뜻이다. 이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초교 저학년의 대면 수업 효과가 좋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고3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매일 학교에 간다. 다만 각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최종적으로 등교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초·3-고2 등 나머지 학년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은 유지한다. 올해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지난해는 개학이 4월 중순까지 늦춰졌지만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예정대로 개학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쏟아지는 눈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오전까지 폭설에 칼바람

2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이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2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2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3-8cm, 전남북부 등 많은 곳에는 10cm 이상 쌓이는 곳

도 있겠다. 또한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29일 아침 기온은 영하 8-영하 3도·낮 기온은 0-3도가 되겠으며, 30일 아침 기온은 영하 8-영하 1도·낮 기온은 9-11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영장청구권 인정 ... 김진욱 처장 조직구성에 '박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

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와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는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

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 되면서 조직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욱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연일뉴스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점 (062)222-0001 & 1111, 서울 서대문구 (0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점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16(수환동) 소문 메르세데스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603(백갈 205호) 수원 메르세데스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G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0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0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